



자원봉사도 수행이다

종교계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는 교세(敎勢)의 '대 사회 회향'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물질적 환원을 통해 정부와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행과 신심의 실천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물질적 환원이 교단의 안목과 정책적 역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신행 차원의 행위가기에 좀더 종교 본연의 자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불교계의 사회복지 동참 활동은 시설 및 운영인원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자원봉사활동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2만여 명 정도가 활동하는 등 매년 11% 정도가 증가하고 있고, 봉사활동 시간도 25% 정도씩 늘어나고 있어 불교 사회 복지



봉사자·활동시간 계속 증가 추세

교육·전문영역 확대 등 뒤따라야

히 대승불교의 실천사상인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정신과 같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 공덕의 사회 회향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 만큼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실행의 방편은 없을 것이다.

불교자원봉사 활동이 올바른 정착 역량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좀더 내실화해야 하고, 다양하고 현실적인 보상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조계종복지재단의 서울과 경기지역의 불교자원봉사 활동 조사 내용을 보더라도 봉사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영역은 식사지원이나 간병도우미 등 40% 이상이 단순 봉사에 치우치고 있고, 대도시에서 집중되는 등 지역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 교단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불교자원봉사 활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

육과 전문영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불교자원봉사센터의 전국적인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고, 불교대학의 교과과정에도 자원봉사 활동이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포교사 고시에도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는 등 다양한 방편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자원봉사 크레디트제도에 상해보험 도입 등 현실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도 봉사자들을 복지향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지현(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조계종 해외포교 '호황'

中 북경법당개원, 미국·호주 겨냥 포교사 양성도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최근 중국 북경한인불자회(회장 양의숙) 법당을 개원하고, 미국 뉴욕에 국제포교사를 파견하는 등 해외포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중국 교민포교를 위해 중국 북경한인불자회 법당 '만월사'를 개원한 포교원은 근시일안에 불교대학을 설립, 국제포교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불교와 기독교를 막론하여 어떠한 종교도 공식적인 포교 및 선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포교원은 이러한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스님이 상주하며 법회와 법당 살림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지 교민을 국제포교사로 양성해 중국 내 불교활동 및 신학생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북경과 상해, 천진, 심양 등 한인불자회가 존재하는 중국 주요지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 지원해 향후 중국에 유입되는 교민들의 지속적인 불교활동을 돕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인들도 포교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 해외지역에 포교사도 파견하고 있다. 올해 처음



중국법당 '만월사' 개원법회와 함께 진행된 현판식. 사진제공=북경한인불자회

으로 미국 뉴욕에 국제포교사를 파견해 종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이버 강의를 통해 국제포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경에는 '국제포교사회 미주지부'(가칭)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LA와 호주 시드니 등을 중심으로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활동이 미약하고, 종단과 연계해 현지의 포교활동을 점검·발전시킬 시스템이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뉴

욕에 파견돼 있는 국제포교사는 1명으로, 법회 위주의 포교활동은 물론 현지포교현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등 해외지역 내 포교역량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라며 "교민들을 계안고 나아가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종단은 물론, 사찰과 신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ipck@buddhapia.com

"49재 보험 가입하세요"

천태종, 불자위한 보험사업 펼쳐

천태종이 보험판매 회사인 (주)금강라이프와 제휴, 7월부터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운전자·종신 보험사업을 벌여나간다. 천태종은 앞서 5월 24일 총무원장 윤덕 스님과 교무부장 준광 스님, 재무부장 도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라이프 현판식을 갖는 등 본격적인 보험사업을 전개하고 나섰다.

금강라이프는 천태종과의 보험업무 제휴를 위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과 자동차·운전자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운전자 보험은 금강라이프를 통해 보험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입하거나 보험사를 바꾸어 가입할 수 있다.

금강라이프는 또 '홍국생명'에 종신보험 상품인 '49재보험'을 기획·의뢰해 놓았으며, 8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49재보험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천태종으로 지정하는 대신 천태종에서 49재와 기제사를 봉행해주는 상품으로, 일반 종신보험의 기능에 사후 불교식 장례와 제사를 보장해준다. 천태종은 49재보험 혜택이 모든 신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49재와 기제사에 관한 통일된 의식절차 개발에 들어갔다.

박봉영 기자

세무서 '수입금액 및 자산현황' 내리

사찰 "종교 독립성 무시·행정편의"

세무서에서 각 사찰을 대상으로 '수입금액 및 자산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는 것과 관련, 종교단체로서 사찰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각급 세무서의 자료 요청 이외의 특촉이나 불이익 등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과 양해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 규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6월 28일 종단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는 세법과 관련 규정상 불가피한 조치이나 종교단체로서 사찰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각급 세무서의 자료 요청 이외의 특촉이나 불이익 등은 없는 것으로 국세청과 양해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 규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종우 기자

교육국장 각만

포교국장 선웅스님

조계종 인사

조계종은 6월 30일자로 교육국장에 각만 스님을 임명했다. 각만 스님은 1984년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계, 199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4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청주 용화사 주지를 지냈다.

남종우 기자

고침·사과의 말씀

본지 지난호(480호) 7면의 '홍성·보령 불교 이끄는 주역들' 기사 제작상 실수로 행의 흐름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4면 봉납사 금강출원생 '5기'를 '3·4기'로 바로잡습니다.

한편 포교원 포교국장에는 선웅 스님이 6월 28일자로 임명됐다. 1988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선웅 스님은 88년 사미계, 94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최근까지 조계사 신도국장을 역임했다.

조용수 기자

승적 정정조치 촉구

조계종 98년 징계사들

조계종 1998년 종단사태 관련 지원 정우·원하·현소·성문 스님은 6월 29일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사 속개를 위한 승적정정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간담회에서 "법규위원회가 2003년 7월 제25차 심판부에서 '신청인들이 해종특위법에 의해 받은 징계는 특별법에 의해 유예된 상태이며,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속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내렸다"며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 계류 중이므로 승적은 당연히 정정(복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적 정정(복정) 재요청서"를 통한 5월 12일 재차 총무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남종우 기자

사자 제작상 실수로 행의 흐름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4면 봉납사 금강출원생 '5기'를 '3·4기'로 바로잡습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재심호계원 불참위원 사퇴하라"

조계종 범어사 선암사 특위

지난 6월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7차 재심호계원이 성원 미달로 자동 유예된 것과 관련, 조계종 범어사·선암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황적, 이하 범어사·선암사 특위가 심판에 불참한 재심호계위원에 대해 사퇴권고안을 차

기 중앙총회에 특위 명의로 의안 상정키로 했다.

특위는 또 선암사가 종단 승인 없이 토지처분금으로 구입한 건물부동산 등래구 인략등 소재 안락중합타운) 유실방지를 위해 신속한 법률적 조치(매각금지) 가져분소송 등을 취할 것을 결의했다.

남종우 기자

1면에서 계속

조계종 신도·신행·포교 단체, 불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종교평화위원회(구 종교평화대학위원회)와 열린우리당도 같은 날 발표한 규약 성명서에서 "시민과 국민이 안위와 행복은 뒷전이고 오직 정치적 목적달성에만 있어 아무런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이 시장은 당장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 참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총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교구본사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강조했다.

공동 취재반

'화엄회' 발족

조계종 중앙총회 총책모임

조계종 중앙총회 새 총책연구모임인 화엄회가 6월 29일 수원 한 호텔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장주·인행·자승·광조·도환·정안·성철·성지·정도·성국·종삼 스님 등 중앙총회회원 11명이 소속된 화엄회는 회장에 장주 스님, 수석부회장에 인행 스님을 추대했다.

이에따라 조계종 총책연구모임은 일승회, 금강회, 보림회, 화엄회 등 4개로 재편됐다. 일승회(회장 종광)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지지 계열로, 금강회(회장 보선)와 보림회(회장 설승)는 견제 세력으로 알려졌다.

남종우 기자

내가 외면해서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추어 내 갈 길을 가기 위해서다
홀로 사는 즐거움
법정 지음 | 양광 | 값 9,800원
깊은 사유의 언어와 맑은 영혼의 소리 <오두막 편지> 이후 5년 만에 펴내는 법정 스님 신작 산문집!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순수하며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서 당당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홀로일 때 비로소 세상에 살면서도 늘 이웃사이로 있으리라. 홀로 있을 때 완벽한 행동과 행동이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전체적이기 때문이다.
사유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는 법정 스님의 책들
서 있는 사람들, 버리고 떠나기, 물소리 바람소리, 산방한담, 당빈 충만, 영혼의 모습,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말과 침묵,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인도기행